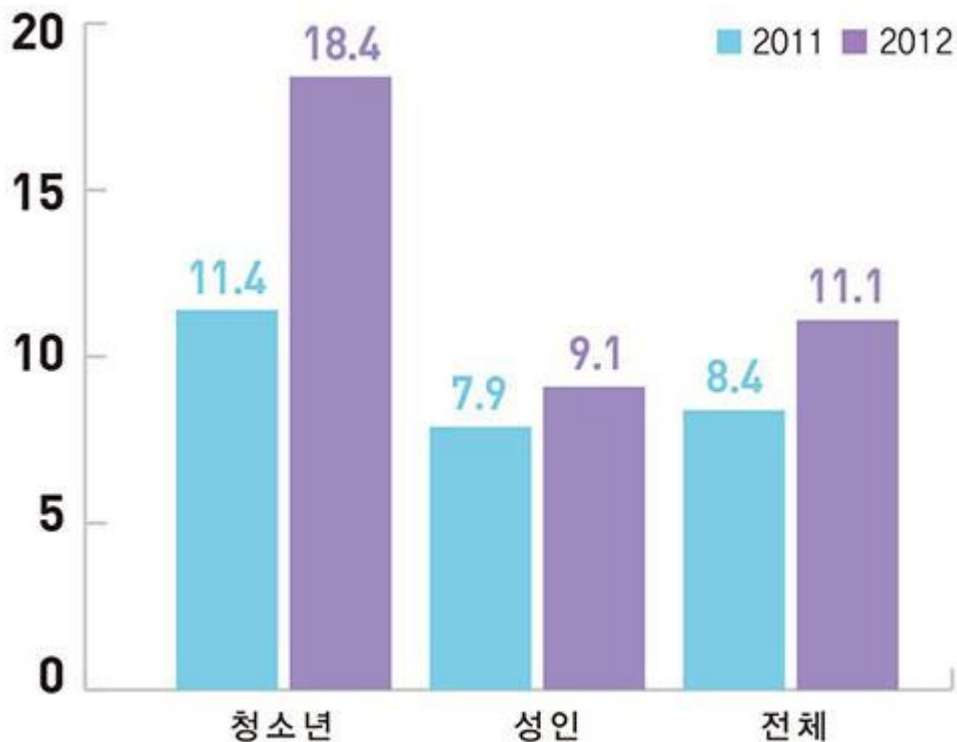


애플리케이션 제작을 통한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방지

문화방송통신위원
회



스마트폰 중독의 실태



-스마트폰 중독률 현황(출처: 미래창조과학부)-

-전국 초,중,고 학생 중
70%이상 스마트폰 소유

-5명 중 1명이 스마트폰
중독 사용군에 속함

-성인 스마트폰 중독률
9.1%에 비해 약 2배나
높은 수치



제안 이유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 범죄 위험에 노출

성추행·학교폭력 왕따 등

강력사건으로 이어져 `심각`

학부모 “최대한 늦게 사주자”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청소년이 크게 늘면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 지연(12세)의 엄마는 사무실에 들어 오면서 근심스럽게 딸아이가 학교교생 자녀를 둔 주부 A(36)씨는 최근 딸과 스마트폰을 떨어뜨려 놓기고 검사에서 척추 측만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결과에 충격을 받은 것 같다. 딸이 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놓지 않습니다. 이지연양을 앞으로 굽히게 하고 등을 관찰해보니 우측이 올라간 틱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최근 아이들 사이에서 스마트폰이 없으면 일하는 것이 육안으로도 판단할 수 있을 정도 였습니다. 한다는 말에 사줬는데 오히려 스마트폰이 [가족](#) 간 다툼의 원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스마트폰 채팅과 SNS 등이 강력사건으로 이어지자 성급하게 스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지자체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충격을 받은 보도를 지난 몇 주전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초 중고학생들은 척추 측만증의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척추측만증이란 척추가 휘는 질병으로 사춘기 전후로 발생해 1~2년 사이 급속히 진행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는 성장기의 유연한 상태의 척추 뼈가 안 좋은 자세에 맞춰 뼈가 모양을 잡기 때문인데 조기 발견과 바른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게임 삼매경... 손목질환 부른다

1 0 + - 田 田

08월 10일자
지면보기

손목은 안 움직이고
손가락만 사용하면
손목터널증후군 위험

올해 1월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가 3000만명을 넘어섰다. DMC미디어의 조사에 따르면 하루 평균 2.9시간 사용하며 10명 중 4명이 중독 성향을 보인다. 정보검색이나 애플리케이션 사용 외에 게임을 즐기는 사람도 급증해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 부작용이 우려된다. 새롭게 스마트폰 게임 해비유저(과다사용자)로 떠오르는 세대는 30~40대 남성이다. 경제활동을 하는 3040세대 이용자들은 타 연령층보다 사용 충성심과 높은 평균 매출을 보인다고 게임 업체는 분석한다. 이에 따라 낚시·단구·탁구 등이 게임이 인기를 얻고 있다

“우리 아이 등이 휘었어요!”

제3장(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법률 제목 변경

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추가로 28조 제정

‘인터넷 게임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 으로 법률 제목 변경

1. 한국문화진흥원은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어플을 제작하여 이후 판매되는 스마트폰에 대해 이 어플을 기본 탑재하도록 한다.
2. 현재 시중에 있는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이 어플을 탑재하도록 한다.
3. 스마트폰 부팅 및 종료 시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문구나 이미지가 나타나도록 한다.

지나친 사용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보급 방안

앞으로 판매되는 기기
에 어플 장착

제정 이전의 스마트폰
의 경우, 소프트웨어 업
그레이드 항목에 포함

스마트폰 구매 시 통신
사에서 어플 관련 설명
을 의무화

질의응답